

수헤르 함마드 **suheir hammad**, “가자 모음시 **the gaza suite**”

(비공식 한국어 번역초안 **an unofficial korean translation, not a completed version**)

옮긴이: 화 ([breathetakeiteasy@gmail.com](mailto:breathetakeiteasy@gmail.com), [ig. ebbandflower](https://www.instagram.com/ebbandflower))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 현장에서 늘 통역에 애써주시는 한나 님께서 까다로운 대목을 더 잘 번역할 방법을 같이 의논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저의 책임입니다.)

수헤르 함마드의 “가자 연작”은 그의 시집 «팔레스타인인으로 태어나다, 흑인으로 태어나다 *born palestinian, born black & the gaza suite*»(UpSet Press, 2010 (1996)) 마지막 작품으로 실렸다(pp. 85-92). 시집 제목은 물론 존 조던 June Jordan의 시 “*Moving towards Home*”(1982) (*Directed by Desire: The Complete Poems of June Jordan* (Canyon Press, 2005)) 끝에서 두 번째 연을 참조하고 계승한다. 함마드와 직접 소통하여 비공식 한국어 번역과 오늘 철야용 배포를 허락받았다. 함마드는 한국과 한국 사람은 자기에게 각별하다는 말을 더붙어 전해주었다. 그는 9/11과 그 여파의 경험을 다루는 “*First Writing Since*”라는 작품에서 뉴욕시의 한식당과 한국음식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텍스트: [first writing since - MERIP](#), 낭독: 무대에서는 텍스트를 다소 변형하여 들려준다 [def poetry. “first writing since”](#))



butterphoenix 1h · Author

@ebbandflower hwa, its yours, the poem, the love, its all for you. i love the korean people habibti & korea means alot to me. ✨ thank you for your efforts, am honored & yes, pls, a free palestine will free the dunya 🕊️🌱



Reply

존 조던 관련 글:

[삶을 향해 움직이며 – 존 조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관해: 어느 흑인 여자가 에이드리언 리치에게 답한다 – 존 조던](#)

가자 모음시 낭독 무대(PalFest 2009):

[Suheir Hammad's Gaza Suite](#)

함마드는 다섯 편의 시를 *gaza - jabaliya - rafah - tel el hawa - zeitoun* 순서로 배치하여 출판하였는데 무대에서는 *jabaliya*를 *tel el hawa* 다음에 낭독한다. 번역문 배치는 낭독 무대의 순서를 따른다.

“가자 모음시”

가자 🇵🇸 Suheir Hammad's Gaza Suite | 1: Gaza

무시무시한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났다  
빛의 향연  
어린이들에게 총탄을 퍼붓기  
군대는 공헌축일 성찬을 즐기고

나는 저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 아무도  
언급을 않는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꽃무늬 유희작 방수포에  
감싸여  
보도되지 않는다

나는 매일 최후의 결전을 치른다  
덩그러니 남겨진 사다리  
여섯 자루 양초가 집 한 채를 전소시킨다  
연기에 묶인 한 마리 말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심전도의 수평선 터져나오는 비명 소리 흐르는 강물  
수명보다 긴 기억  
산 자들은 제 나라에서 죽기를 원한다

없다 열린 문이 없다 열린 바다가 없다 열린  
양 손 가득 쏟아진 심장 흰 천에 감싸인 다섯 딸

매일 매일 치르는 지하드  
매일 매일 두려움을 넘는 신심  
매일 매일 화염을 비추는 거울  
산 자들은 제 가족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

소녀가 팔다리를 잃는다 그의 형제가 두 팔을 수습한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죽지 않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병원 바닥에 어머니가 곁에  
그애들의 아버지는 충격에 나의 가족이에요  
내가 못 지켰어요 나의 가족인데요 나는  
그들의 머리를 받쳐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을 못었어요  
나의 가족을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의 가족은  
땀이에요  
한 우리 물살이에요 하나의 민족이에요 조각조각  
나버렸어요

목마름이 도적질이 삶이 존재한다  
굶주림이 겨울 속의 겨울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구원을 해내기 위하여  
나는 다다랐다 심판을 앞둔 종말의 시간 언제나 참석한다

여자가 부모님을 잃었다 아이들을 잃었다 소리친다  
나의 자매요 나는 나의 자매를 잃었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나의 자매는 두 눈이 벌꿀 같았어요 목소리가 나와  
같았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신만이 오직 신만이 나의  
자매를

의사들이 살해된다 학교들이 공격 당한다 수송차량이  
폭탄 맞는다  
부상자들이 죽어간다 죽은 자들이 매장된다 불과 세  
시간 안에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를 한다 욕을 뱉는다  
사람들은  
애도한다 시끄럽게도 조용하게도 언제나 너무 크다  
충분히 안 크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곳은 근처이므로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게 적혀 있었으므로

어떤 군대도 사과하지 않는다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당국은 관료적 절차 허상의 의회나  
뒤쫓고  
점령 세력은 더 깊숙히 정착해 들어온다

무시무시한 기적이 여기에  
산 자는 죽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있고

빛의 향연  
하나의 지구(地區) 하나의 육지 하나의 불꽃

바다는 화염의 거울

어린이들에게 피부어지는 총탄  
어린이들의 머리가 굴러떨어진다 어린이들의 어깨에서  
거리로  
어린이들의 팽이가 손 안에서 회전한다

군대는 공헌축일 성찬을 즐기고  
미래를 역사로 몰아넣고  
햇불을 들고 여자들 속으로 들어가고

#### 라파 Suheir Hammad's Gaza Suite | 2: Rafah

이 모든 일에는 음악이 있다  
이 소음 속에는 명령의 질서가 있다  
모든 무기 뒤에는 사람의 손길이  
모두 사람 손에 제작이 별들은 모두를 비추고

무언가가 녹아내린다 비둘기 한 마리가 털갈이 한다  
구슬피 어스름을 가로지른다

어린이가 잇따라 수습된다 가능하다면  
몸을 닦인다 가능하다면 감싸인다 천이야 언제나 있다  
그러는 내내 기도를 받는다 그리고는 총총히 눈길을  
받는다 여자들로부터  
언제나 여자들이다 겨울의 전쟁의 한가운데의 온실의  
카메라들은 남자들과 떠난다 그리고 시신들은 언제나  
여자들과 어떻게든 어떻게든 찻물을 끓이고  
살아있는 어린이들을 모으고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을 씻기고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고  
어린이들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바닥 속으로 소중한 삶  
위로

무언가가 녹아든다 새벽녘으로 벗겨진 깃털들 눈들

사람들이 고도로 흥분한다  
그런 순간 호흡이 화상을 악화시킨다  
그런 경우 정착민들이 우위를 점한다  
그런 방법으로 마을들이 불도저에 밀려나간다 사이로  
기념일과 기념일의 우리의 눈 앞에서  
고도의 폭력 성스러운 어린이들 어린 양  
더는 상속되지 않는 경험  
진짜  
흙 초토화 된 콘크리트 속의  
심장 연기를 피워올리는 박자 속의

텔알하와

#### Suheir Hammad's Gaza Suite | 3: Tel al-Hawa

무슨 요일입니까  
악취 나는 바닷길목의 베이스노트  
사향 알코올의 탐노트

밤은 어땠습니까  
하늘이 만개했지요 연기가 하였지요 사위는 칠흑  
갈았지요  
생명을 불태우는 새벽이었습니까

이번 겨울은 너무나 길어요  
이 그늘은 너무나 추워요  
무슨 요일입니까

한 여자가 아기를 꿈 꿔니다 몇 해를  
수놓습니다 소원들을 이름들을 천사들을  
하나의 미래가 천 위에 놓입니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녀의  
아이를 폭격당한 거리들 순교자

무슨 요일입니까

한 아버지가 뼈 빠지게 장시간 노동합니다 먹이기 위하여  
자식을 입히기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매장합니다 그들을  
그의 고통이 소리로 무너져내립니다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가장 끔찍한 밤입니다

#### 자발리아 Suheir Hammad's Gaza Suite | 4: Jabalya

여자가 종을 찬다 불을 든다 부른다 찾는다  
데이르야신의 창상을 헤치고 라파를 요구한다 빵을  
요구한다  
손톱 밑에는 오렌지 껍질이 발 밑에는 파란 유리가 여자는  
모은다  
자이툰의 어린이들을 죽은 어머니들 곁에 앉아 있다  
여자는 찾아낸다  
터널들을 그리고 묻는다 태양을 외상 위로 스무날 그리고  
또 하루 울린다  
종이 그녀는 어지럽다 더하다 어제보다 덜하다  
내일보다 갈지자로 돌아가기 다와이마로 종열종열  
돌아가기 수바로

돌아가기 샤틸라로 돌아가기 라울레로 돌아가기  
제닌으로 돌아가기 알할릴로 돌아가기 알쿠드스로  
모든 곳이 모두 지하로 물려받은 오랜 보관함들로 그녀는  
울린다  
종을 자기가 못 보는 무엇가를 약속하며 신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방방곡곡에 이 땅의 한가운데에  
바람의 그녀는 풍겼다 타오르는 바다가 내는 사랑의  
향기를

과밀해지는 난민 수용소  
표적이 되는 적신월사

소녀는 얼굴이 솟으로 식었다 몸을 개에게 먹힌다  
천사들이 우르르 붙잡혀 감금당한다 포격당한다  
부상당한다 총격

무기들 삼림을 파괴하며 도시로 진격하는 군대를 위한  
오오 세이지 나무여 인간의 피부여 접촉 폭발 이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녀는 종소리로 연주하며 나블루스를 통과한다 아파로  
돌아간다 등허리들로 총알이 날아온다 아래에서  
백린탄 집중 조명의 살해를 당한다 명예훼손을 당한다  
선전이라는

대중과의  
관계 맺기

종이 발사된다 제리코에서 울린다 폭파된 창문을  
통과하여 여자가  
운반한다 뼈들을 담아서 가방에 믿음 없는 피로한 눈으로  
되어간다  
무감각하게 막힌다 말문이 숫자들에 가자의 앞쪽과  
뒷쪽으로 가자의 방향으로  
가자를 위하여 미안합니다 가자여 미안합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른다 모든  
힘없는 존재를 위하여 그녀가 내는 음마다 완벽하다 그  
중은 울린다 사망자 수를

자이툰  Suheir Hammad's Gaza Suite | 5: Zaytoun

여기로부터 어디로  
한 줄기 땅 피어오른다  
소녀의 머리카락 안에서 피어오른다  
철조망 장작 단어가 피어오른다  
여기에는 시신들이 존재한다  
조그만 모자이크로 가려진 어린이들  
장벽에 가로막힌 삼중의 추방  
나의 망인들은 구조된다  
국경 검문소들의 폐쇄  
증기처럼 흩어지는 흙  
신들린 금속  
여기로부터 어디로

나는 완전히 터널이다

[끝]

**FREE PALESTINE**